

항상 기뻐하라 : JOY4U

최고의 음질, 최고의 찬양,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일평균 3만5천여 명의 청취자가 접속
‘JOY4U DJ 무료 콘서트’ 신청 각 교회별 쇄도

1954년부터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에 매진해 온 CBS가 60여년의 방송 역량을 모두 모아 만든 국내 유일의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CBS JOY4U. JOY4U를 틀면 언제 어디서나 하루 종일 은혜가 넘치는 국내외 찬송가와 CCM, 경배와 찬양, 정통 가스펠, 교회음악, 성가 등 모든 장르의 기독교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2015년 9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JOY4U는 1년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하루 평균 3만 5천여 명이 접속해서 JOY4U의 DJ들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JOY4U는 기존의 라디오가 아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한국 전쟁 직후 당시 첨단 미디어였던 라디오로 방송선교를 시작한 CBS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TV를 통한 방송선교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라



디오 채널 JOY4U를 통해 24시간 온 누리에 찬양의 메아리를 울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JOY4U 청취자 게시판에는 매일 눈을 뜨면 JOY4U를 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찬

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느끼며,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와 감동을 느낀 청취자들이 자발적으로 JOY4U 후원에 나서기 시작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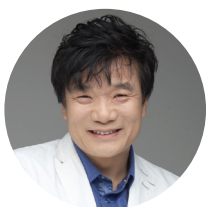
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JOY4U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JOY4U의 프로그램들은 감히 최고의 품질로 제작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송정미, 최인혁, 한용재, 안성진 등 국내 최고의 찬양

사역자들이 매일같이 CBS의 스튜디오에 나와 DJ를 맡고 있으며, 박명규, 이명희 아나운서 등 CBS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들이 은혜로운 찬양의 동반자로 함께 하고 있다.

또한 JOY4U는 송정미, 최인혁, 한용재, 안성진 등 가수DJ와 함께 전국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찬양콘서트로 은혜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10여 곳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많은 이들과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공연장과 교회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JOY4U는 ‘CBS레인보우’ 앱을 통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들을 수 있다. 스마트폰은 ‘앱스토어’에서 ‘레인보우’를 검색해서 설치를 누르면 되고 PC용 프로그램도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설치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JOY4U를 즐길 수 있다. 물론 모두 무료이며 지난해 말부터는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TV의 오디오 채널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어 간편하게 들을 수 있다.



그들이 몰려온다. 평생 기다려온 것처럼, 〈JOY4U 콘서트〉

제가 CBS와 방송 진행자로 처음 인연을 맺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JOY4U의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 확실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청취자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우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일상엔 각기 다른데 방송이 시작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JOY4U를 평생 기다려 왔던 분들처럼.

청취자들의 만남과 관계가 하나의 교회 같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이 치유되는 과정을 기도로 함께 합니다. RH- 혈액형이 필요하다는 급한 요청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애청자가 피를 나누고, 감사의 사례를 전하는 수혈 가족에게는 JOY4U가 한 일이라고 공을 CBS로 돌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JOY4U를 들으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어느 초등학교생은 자기 용돈을 줄여 JOY4U를 위해 매달 만 원의 현금을 보내고, 인도의 어느 선교사님은 아침마다 선교

지로 가는 출근길에 JOY4U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받는다고 감사의 소식을 전해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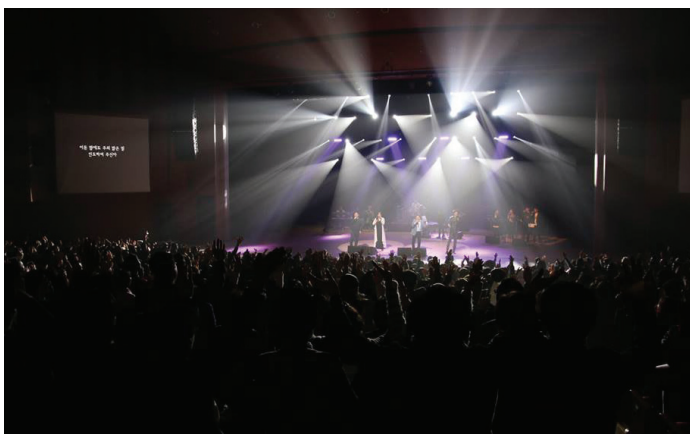
이런 사연들이 다른 방송과 비슷한 듯 싶지만 그 온도 차이는 너무 큼니다.

JOY4U를 통해 얻는 위로와 기쁨, 하나님의 만지심이 특별하고 크다는 것을 방송을 함께하는 제작진도 청취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JOY4U의 그 뜨거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JOY4U DJ 콘서트가 그것입니다. JOY4U DJ 중에 4명은 한국 땅에서 귀한 사역을 해오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꿈이 있

는 자유’의 한용재 목사, 송정미, 안성진, 그리고 댄스가수(?) 최인혁. 요즘 같은 때는 CCM 공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이 쉽지 않은데 JOY4U DJ 콘서트장에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듭니다. 그 공연의 열기와 하나님을 높이는 열정과 헌신은 요즘 어디서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뜨거운 것입니다.

DJ들이 유명해서가 아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JOY4U가 갖고 있는 힘이고 하나님이 JOY4U 방송을 사용하신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 : 최인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가 되겠습니다

CBS는 전 세계에 위성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모름은 PC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CBS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 사무실에서 이를 실감할 일이 별로 없지만 'CBS가 세계 곳곳에서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전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미국 보스턴의 신 장로님!

매번 예배 카트에 정성스럽게 적은 손글씨로 CBS에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시는데요.

지난 2015년 첫 후원을 시작하신 이후 매월 정하신 후원금을 카트에 동봉해 주십니다.

방송을 보고 꼼꼼하게 느낀 점들을 적어주시고 CBS에 바라는 점들도 언급하시는데,

그 짧지만 강한 메시지에 CBS의 선교 사명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올해를 시작하며 받은 카드에는 '전파를 통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2017년에도 함께 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BS를 시청하고 계신 양 권사님도 계십니다.

양 권사님은 CBS TV를 보기위해 직접 셋톱박스(set top box)를 구매하셨다고 해요.

CBS가 방송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준 용돈을 아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이민 생활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CBS를 통해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CBS 성서학당>을 통해 평소 성경을 읽으며 궁금했던
내용들과 몰랐던 부분들을 재미있게 배워가는 즐거움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양 권사님은
감사하게도 시드니 한인교회 교우들과 함께 CBS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미국 지역 외에도 라테말라, 볼리비아에서 CBS 방송을 보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CBS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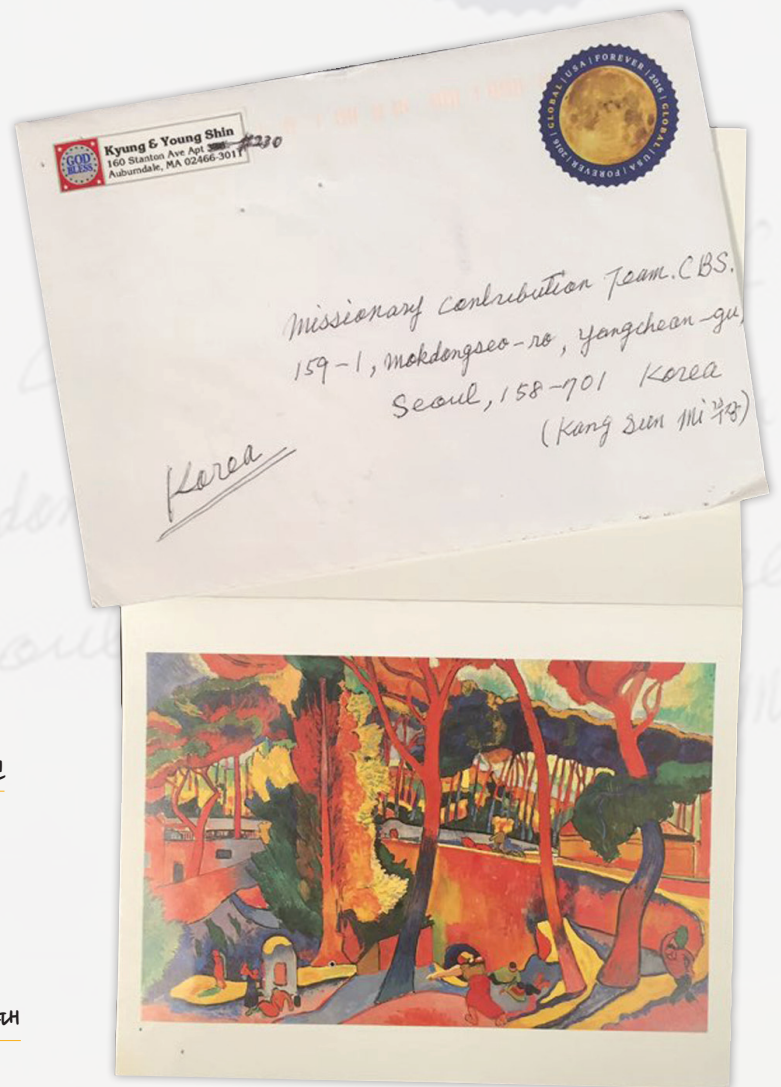
낮선 땅에서 '주으면 주리라'는 마음으로 선교사역을 펼치다 힘이 들고 외로움이 사무칠 때
'CBS를 보고 큰 위로를 받았고, 타국생활의 가장 큰 친구가 CBS다'라는 편지를 받을 때면
이 땅에 CBS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CBS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CBS 방송을 통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후원자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CBS선교후원안내

선교후원계좌 예금주:(재)CBS

우리 212-001999-13-045

ARS 후원

060-808-0000

국민 802-25-0009-268

후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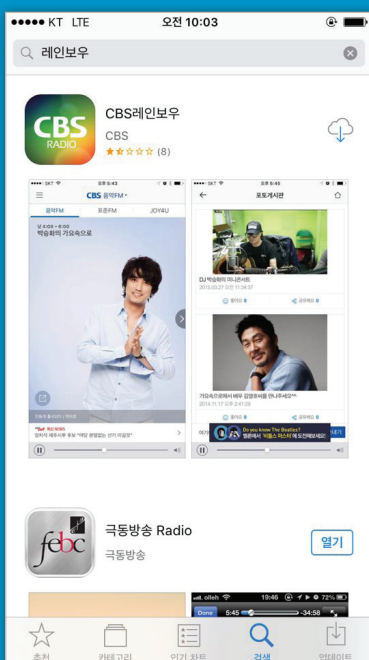
02-2650-7004

농협 358-17-000404

선교후원 홈페이지

love.cbs.co.kr

스마트폰으로 JOY4U 후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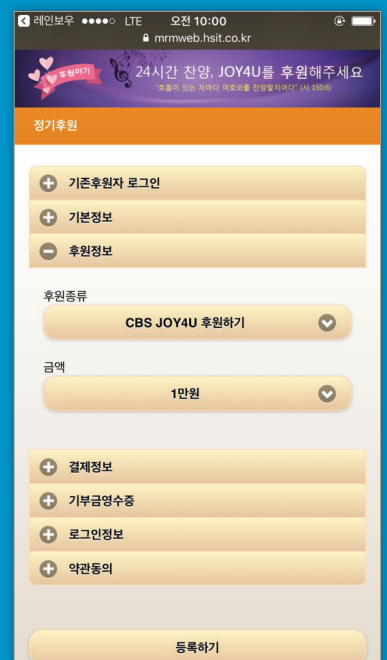
① 앱스토어에서 '레인보우' 검색을
하면 'CBS레인보우' 어플이 나옵니다.
받기를 누르고 어플을 설치합니다.



②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레인보우'
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
니다. 우측 상단의 JOY4U 아이콘을
누릅니다.



③ JOY4U 아이콘을 누르면 프로그램
이 나옵니다. 하단 JOY4U 후원하기
보라색 아이콘을 누릅니다.



④ JOY4U 후원 페이지가 나옵니다.
매달 정한 날짜에 정한 금액을 등록
하면 JOY4U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암송성경 1189’ 제작 중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까지 다양한 민족과 언어 참여, 러닝타임 80시간 초대형 프로젝트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창세기 1장 암송으로 시작,
조그라포스 아리스토텔레스 정교회 대주교의
요한계시록 22장 마무리까지, 세계가 이어달린다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암송성경 1189’(이하 ‘1189’)는 다음세대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1,189장으로 구성된 성경을 1,189팀이 한 장씩 암송하는 영상성경 제작 프로젝트다. 지난 3월 각 팀별 성경 배경을 완료하였으며, 4월 현재 팀 별로 촬영한 암송영상을 취합하며 본격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1189’는 러닝타임 80시간이상의 초대형 성경으로 기록될 것 같다.

성경을 배경받은 1,189팀은 각각 배경 받은 성경을 각기 다른 창의적인 형식으로 암송하여 영상미가 기대되고 있다. 전교생이 참여한 크리스천국제아카데미는 다양한 울동을 가미한 영상제작을, 세대로교회의 왕선영 집사는 임신 20주임에도 태어날 아이가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신한 모습으로 암송을 진행하는 등 참여동기도 다양하다.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창세기 첫 장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함께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히브리어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장은 조그라포스 아리스토텔레스 한국정교회 대주교와 함께 그리스 어린이들이 헬라어로 참여한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크로이츠 교회의 어린이들은 마태복음 1장을,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욥기 37장을 암송하는

등 몽골, 케냐,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인도, 네팔, 레바논, 쿠르드족 등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참여해 ‘1189’ 제작에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암송성경은 6월에 완성될 예정이며, 7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국내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봉헌과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7월 5일에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붙었던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성경 전시를, 7월 9일에는 루트비히스부르크의 크로이츠 교회에서 봉헌 예배를, 다음 날인 10일에는 독일 성서공회가 위치한 슈투트가르트의 성경박물관에서 전시에 들어가는 등 해외 행사와 9월에는 곤지암에 위치한 기독교박물관에서 특별전시, 10월에 킨텍스에서 열리는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예배 참가 등의 국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한편, ‘1189’는 보다 많은 다음세대의 회복을 위해 미자립교회 및 오지, 섬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우선 배정하여 운영을 하였다. 또한 권위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의 성경 66권에 대한 각 권당 핵심 코멘트도 영상으로 기록돼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CBS는 암송에 참여한 다음세대 전원을 ‘CBS 청소년 기자단’으로 운영하여 10년 동안 다음세대의 영적 성장을 돕는 역할도 감당하고자 한다.

참가자 수기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가슴 속 뜨거움으로



사진 오른쪽 4번 이 안예겸 군

황금 같은 방학을 누리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번 CBS에서 주최하는 ‘암송성경 1189’를 한번 해볼까?”라고 물어보셨다. ‘아니요! 싫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거절을 못하는 나는 불평과 짜증을 참아가면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역시 처음에는 허가 굳고 뇌의 과부하까지 오면서 포기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끝까지 해내리

라는 다짐을 하고 외우다 보니 어느 정도 외워지긴 했다. 그런데 문제는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말씀 뜻을 이해하지 못해 웬지 문장들이 생소하고 어휘가 어려워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결국 해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다. 그 때 이런 생각을 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대충 읽지 말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았는데 말씀을 외움으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앞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며 가슴속 깊이 읽어내려 가야겠다.

글 : 산돌교회 안예겸(중1)

참가자 수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로서는 자녀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유업으로 주어야 할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음을 집어넣을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BS 암송성경 1189’ 캠페인은 자녀와 함께 말씀암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인 일에 그것도 전세계 다음세대들이 만들어 가는 역사적인 일에 우리 자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CBS화이팅!”

글 : 최성민(중2) 군 아빠 최봉호 목사



사진 맨 왼쪽 최봉호 목사, 그 옆 최성민 군



의미와 재미가 담긴 <CBS TV>

<실화극장 새롭게 하소서>, HD<더 바이블>, <기도캠페인>, <새벽예배>, <나를 살리는 찬송> 등
신앙의 본질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CBS TV가 2017년 봄을 맞아 개편을 실시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신앙의 본질 회복'을 목표로 '말씀, 기도, 찬양'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여 의미와 재미를 함께 담은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드라마로 만나는 믿음의 현장
<실화극장 새롭게 하소서>,
HD <더 바이블>

먼저 CBS 최초로 시도되는 재연드라마 <실화극장 새롭게 하소서>와 HD로 다시 태어난 <더 바이블>이 시선을 모은다.

37년의 역사, 1만여 명의 출연자를 자랑하는 국내 최장수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의 감동을 드라마로 만나는 <실화극장 새롭게 하소서>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생생한 감동을 전달한다.

특히 3월 22일 첫 방송에서는

배우 이광기의 사연이 방송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신종플루로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광기가 어떻게 나눔 전도사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회복의 역사가 드라마로 펼쳐져 시청자의 가슴을 울렸다.

또한 2007년 CBS TV를 통해 첫 방영될 당시 한국교회에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선사하고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성서드라마 <더 바이블>이 HD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고화질의 새로운 화면으로 돌아왔다. 총 42부작의 대하드라마 <더 바이블>은 창세



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우르는 구성으로 성경이 주는 감동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우리말 더빙'과 '한글 자막'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돼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신앙의 본질 회복을 위한 '말씀, 기도, 찬양' 프로그램 강화

신앙의 본질인 '말씀, 기도, 찬양'에 충실하자는 의도로 기획·제작된 프로그램들도 한국교회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CBS TV 최고 시청률과 인지도를 자랑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 <CBS성서학당>은 주 5회에서 주 6회로 확대 편성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시청자를 찾

아간다. 신우인 목사, 송태근 목사를 비롯한 명강사들의 강의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직접 작성한 기도문으로 아침, 낮, 저녁 하루 세 번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기도 캠페인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와 이른 아침, 방송을 통해 만나는 <새벽예배 기도여는 하루>는 신앙 길잡이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크리스천 연예인, 목회자 등 우리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인생 찬송가'에 얹힌 사연과 CCM가수들의 새로운 편곡으로 태어난 찬송가를 함께 들어보는 <나를 살리는 찬송>은 찬송의 은혜와 감동을 더한다.

예수의 사람들이 사는 법, <CBS 초대석>

<CBS 초대석>(매주 금 오전 7시30분 방송, 신석현 PD)은 2016년 가을 개편부터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천 리더들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제작중이다. 2016년 11월 홍정길 원로목사(남서울은혜교회)를 시작으로 매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리더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동안 전명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조화순 원로목사(노동운동가), 환완상 명예교수(전 통일부 총리), 이영훈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 고훈 원로목사(안산제일교회), 참존 화장품 김광석 회장(참존화장품), 원희룡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등 22명의 크리스천 리더를 초대해 그들의 삶과 삶 속에 녹아있는 신앙고백을 들었다. 그동안 방송되었던 내용 가운데 감동적인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에피소드1 은퇴선교사 마을 총장 홍정길 원로목사의 예배당 건축기

은퇴선교사 마을을 조성 중인 홍정길 원로목사를 경기도 가평 생명의빛 예배당에서 만났다. 건축재료 가운데 가장 귀한 홍송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예배당에 얹힌 사연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귀한 건축 재료를 기증한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홍정길 원로목사에게 어머니를 기억할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건축 설계를 맡은 건축가는 열두살에 멋진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신앙의 사람이었다. 귀한 사연들을 간직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은퇴선교사 마을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노목회자의 담담한 고백과 아름다운 예배당의 그림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에피소드2 믿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끄는 원희룡 도지사의 신앙이야기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의 회



조혜진 기자와 원희룡 도지사

장을 할 정도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원조 '교회오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로 부임하자마자 전통제례 집례를 거부해 논란이 됐던 일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한라산 산신제'에서 도지사로서 정식 집정관을 맡으라는 요청이었는데, 이는 도지사이기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이 수 없었다고 말한

다. 다만 전통문화 차원의 지원은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대학생 시절 도시산업 선교회에서 야학을 가르칠 때 아들을 맡려달라는 대학 총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을 찾아왔다가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만 보고 기도만 하시고 떠나셨던 '신앙인' 아버지의 일화를 전해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 주었다.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CBS 초대석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CBS 초대석>이다. 말로는 '초대'라고 하나 실상은 출연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 찾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6대의 카메라와 조명 장비 그리고 1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전국을 다닌다. 방송의 형식이 가벼운 대담이라고 생각했던 출연자들도 CBS의 소명과 헌신에 깊이 공감하며 애정을 표하기도 한다.

일주일만 한 편, 한 사람의 인생을 30분에 담아내기 때문에 섭외·사전 인터뷰·구성·촬영·편집 등 후반작업까지 할 시간이 늘 빠듯하다. 때로는 시간에 쫓겨 '그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도 많다. 그럼에도 이들의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말만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동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리더들의 삶을 CBS가 초대하는 것이기에 출연자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메시지는 곧 CBS의 본질과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해 본다. (신석현 PD)



홍정길 원로목사

신천지특별취재단, <싸이판> 론칭

CBS는 각종 이단사이비 종파에 대한 취재보도, 실체폭로, 포교전략 차단, 정관계 유착비리 색출, 민형사 소송 등 치열한 영적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로서 한국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이단사이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신천지특별취재단은 팟캐스트 프로그램 <싸이판>(싸이비가 판치는 세상, 싸이비 판별 프로젝트)을 출범시켰다.

최근 이단사이비 종파들이 더욱 교묘한 포교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뉴스와 특집방송만으로는 대응이 미흡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싸이판>은 1시간여의 방송을 통해 이단사이비 추적과정의 뒷

이야기와 최신 정보, 추정과 예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흥미진진하게 펼치고 있다. 또 원하는 시간에 에피소드별로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편리함, 스마트폰과 PC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이단사이비 폭로에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싸이판>을 통해 이단사이비 전문가 및 피해자들의 증언이 소

개되고 정치권과 이단사이비 집단의 유착, 최순실 국정농단에 얽힌 이단사이비 세력 등이 폭로되면서 <싸이판>은 교계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과 정치인들에게까지 인기를 얻으며 론칭 두 달 만에 조회 수 20만을 넘어섰다. CBS 레인보우 앱에서 팟캐스트를 선택해 <싸이판>을 찾으면 다양한 이단사이비 에피소드들을 만날 수 있다.

CBS가 대한민국에 선사한 선물! <순종>

2016년, 작지만 강한 영화 <순종>이 남긴 것들!



작은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며 흥행한 영화 <순종>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감독_김동민, 이주훈 | 주연_김은혜, 한성국, 김영화 | 제공_밀알복지재단 | 제작_CBS | 배급_CBS, ㈜안다미로]

철저한 사전기획! 수려한 영상미 자랑하는 해외 올 로케이션 촬영!

개봉 전 기획 단계부터 남달랐던 <순종>은 그 첫 시작부터 특별했다. CBS 최초 극장용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스태프들은 총 20편이 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철저히 분석했으며 총 1년 6개월이 넘는 촬영, 후반 편집 과정을 거친 후 대망의 <순종>을 완성해낼 수 있었다. 모든 스태프들의 인고의 노력으로 탄생시킨 <순종>은 해외 오지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을 통해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게 만들었음은 물론 해외 올 로케이션에 걸맞게

기존 다큐멘터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수려한 영상미를 자랑하며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어둠과 타락의 시대, 작은 촛불 같은 영화가 되다!

이러한 <순종>의 탄탄한 작품성은 개봉 이후 더욱 빛났는데, 다양한 사건들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건디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찬란히 빛나는 촛불 같은 영화가 되기도 했다.

또한, 기존의 선교 다큐멘터리의 한계였던 단순 사역소개 방식을 넘어 선교사들이 타지에서 겪는 고충과 갈등을 담아내 비종교인들도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완성해냈다.

저예산 다큐멘터리의 한계를 딛고 장기 상영 순항!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베스트 촬영감독상 수상!

제8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 선교부분 최우수상 수상!

2017 케이블방송대상 교양/다큐 부문 대상

더불어, 저예산 다큐멘터리로서는 쉽지 않은 4주 연속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 석권과 끊임없는 단체관람, 상영 문의로 순항했던 점은 특히 눈여겨 볼 만하다.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베스트 촬영감독상을 수상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기독교언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해 최고의 웰메이드(Wellmade) 다큐멘터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한 편의 영화로 아름다운 세상을...' CBS시네마의 도전은 계속된다!

극장가에 작은 영화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CBS 시네마는 '한 편의 영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설립목적에 맞게, 앞으로 종교영화를 넘어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프렌들리(Family-Friendly) 영화를 수급할 예정이다. 폭력성 영화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CBS 시네마가 착한 영화의 흥행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상 전문' 보도국 김광일 기자 인권보도상 수상-6관왕 달성

지난해 보도국 김광일 기자가 인권보도상을 수상하면서 6관왕에 등극했다. 김광일 기자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시상하는 '2016년 올해의 인권보도상'을 수상하게 됐다. CBS는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김 기자는 '지적장애아 하은이 사건'과 '구의역 사고 배후, 폐피아 계약'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 노근리 평화상 등 무려 6관왕을 차지했다.

CBS시네마 6월 개봉 예정작, <The case for Christ>

시놉시스



시카고 트리뷴지 사회부 기자출신인 주인공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로 아내가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며 의구심을 품게 된다. 사회부 기자로 치밀하게 범죄를 추리하는 기법을 통해 역사적, 실존적 예수에 대해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기록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게 된다.

2017년 6월 대개봉!!

막강한 다음세대 찬양사역자가 떴다!!

제12회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헤이븐' 대상

국내 유일의 순수 창작 크리스천음악 대회인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장신대(경기도 광주)에서 개최됐다.

인터넷라디오 JOY4U에서 생중계가 이뤄지는 가운데 본선에 오른 총 9팀이 경연을 펼쳤는데, 작사, 작곡 실력은 물론 보컬과 개성 있는 무대연출에 이르기까지 간증과 은혜를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막강한 다음세대 찬양사역자들의 탄생을 알린 자리였다.

대상의 영광은 <호산나>를 열창한 '헤이븐(HAVEN)'이 차지했고, 금상은 <일어나라 주의 청년 빛을 발하라-ARISE>를 부른 '어라이즈

(ARISE)'가, 은상은 <치유>를 노래한 이상혁이, 동상은 <거룩한 보혈>을 선포한 이다은이 수상했다. 아울러 프로듀서상은 청춘다회가, JOY4U상은 원 보이스가, 가창상은 정예진, 작곡상은 이소연, 인기상은 사랑꾼밴드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송실대 강명식 교수와 함께 거룩한 찬양의 울림을 전하며 제28회를 기약한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은 올 여름 새롭게 접수할 참가자들의 예선을 거쳐 10월경 대망의 본선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문의전화: 02)2650-7930

'헤이븐' 우승소감

(제12회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대상 수상팀)



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회 안에 있었다. 이제 힘을 합쳐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찬양팀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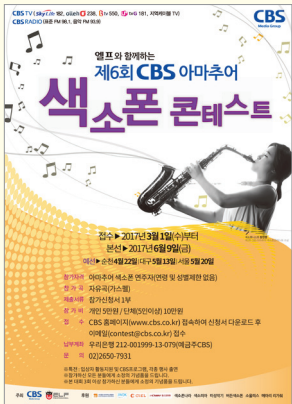
두 번째는 우리 '헤이븐' 멤버들이 경험한 치유와 회복을 나누게 하신 것이다. 우리 팀에는 이상하게도 고혈압, 관절염, 종양, 피부병, 만성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세상 악골'들이 많은데, 매주 나눔을 하는 과정을 통해 영과 육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또한 사역에 정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제 더 큰 보폭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통해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오실 날까지 뜨겁게 <호산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첫 번째 열매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

culture

제6회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

2017년 6월 9일, 본선 개최 예정



색소폰 문화의 발전과 찬양 연주에 새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해 온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는 오는 4월 22일 순천, 5월 13일 대구, 5월 20일 서울에서 예선전으로 치른 후 6월 9일에 최종 본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얀 백발에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진정성 있는 연주를 들려준 지난해 우승자 이진완(강릉, 75세) 권사의 우승 소감처럼 올해도 "더욱 크게 쓰임 받는 연주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나팔수들의 등용문이 되기를 기대하며, 2017년 대회 참가와 본선 관람에 뜻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

문의전화: 02)2650-7930

"색소폰으로 주 찬양의 영광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마련되는 제6회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가 올해도 열띤 경연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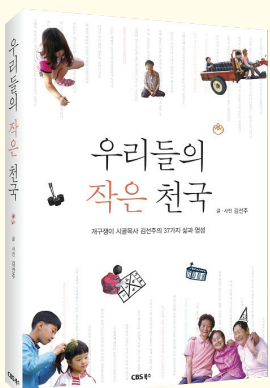
제6회 엘프와 함께하는 CBS 아마추어 가스펠 색소폰 콘테스트

본선대회 일정 2017년 6월 9일 (금) 저녁 7시
예선대회 일정 순천 예선 4월22일, 대구 예선 5월13일, 서울 예선 5월20일

books

CBS 북스 <우리들의 작은 천국>

김선주 목사의 주옥같은 삶과 영성의 이야기



CBS북스가 '한국교회의 일곱 가지 죄악'을 외치고 깊은 산 속 두메산골로 들어간 김선주 목사의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에세이 <우리들의 작은 천국>을 발간했다.

해발 500고지 충북 영동 두메산골에서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하며 겪은 일상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대자연의 품이 선사하는 신비로운 영적 깨달음을 유머러스하면서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도회의 메마른 삶에 찌들어 있는 독자들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일상과 영성에 관한 37가지 이야기

가 실렸다.

중심을 버리고 변방으로 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두메산골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노인, 아이들과 소박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공유하며 기독교의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김선주 목사.

종교와 삶,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이 빛나는 <우리들의 작은 천국>은 신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에게도 작지만 아름다운 삶의 풍경이란 무엇일지를 반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CBS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십자가 전시회 개최



전북CBS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십자가 그 사랑'을 주제로 십자가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회는 사순절 기간인 지난 3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북CBS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전시회에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서울 등 전국에서 7000여 명이 방문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전시된 십자가는 익산 삼일교회 진영훈 목사가 수집한 작품으로,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세계 40여 개국에서 수집한 십자가가 750점이 자리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내내 큐레이터로 봉사한 진 목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작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십자가가 우

상이 아닌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전시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의 십자가들은 다양한 형태만큼 여러 이야기들이 담고 있었다. 이 중에서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작품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품은 '세월호 십자가'였다. 세월호 십자가는 충남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 화륜 목사가 디자인했다.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작은 십자가는 타원형으로 가라앉은 세월호 모양을 형상화했고, 타원 안에는 참사 일을 뜻하는 숫자 '0416'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이외에도 성경 속 베드로의 물고기 마릿수를 상징하는 '153 십

자가', 벼랑 끝에 선 한국 교회의 위기를 표현한 '벼랑 끝 예수, 그리고 오름',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화목의 십자가' 등도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순절 기간에 열린 십자가 전시회는 이곳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줬다. 한 관객은 "나무와 돌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관객은 "십자가 전시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화해와 용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 소망을 봤다"라며 감동을 전했다.

대전CBS

'이단 대책 세미나' 개최

대전CBS는 지난 3월 16일 대전 열방감리교회에서 대전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임제택 목사)와 공동으로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대전지역 목회자와 장로,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동성애와 신천지,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듣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른 군(軍)인권연구소 대표이자 대전 송촌장로교회 부목사인 김영길 목사가 '동성애와 인권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또 대전 이단 상담소장이자 예안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강성호 목사가 '이단 탈퇴자 교회 재정착'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신천지의 포교 전략과 대응 방안, 이만희 사후

신천지 붕괴에 대비해 이단 탈퇴자를 어떻게 기존 교회에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를 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성서화운동본부 이단 대책위원장이자 비전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백광현 목사가 '이슬람'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슬람의 위험성을 경고

하고 기독교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CBS는 신천지 등 한국교회로부터 이단 사이비로 지정된 종교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대전성서화운동본부와 함께 이단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CBS

미디어 운영위원회 발족

올해로 창립58주년을 맞은 대구CBS는 지난 3월 20일 대구중앙침례교회에서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4대 박희중목사(대봉교회)에 이은 윤재철목사(중앙침례교회)가 제5대 운영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이·취임식을 가졌다.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매체 간 경쟁과 급변하는 방송환경 및 기술 변화시대를 맞아 매체의 영향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음전파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대구CBS 미디어

운영위원회를 신규 발족하고 이날 위촉식을 가졌다.

김창수 본부장은 “디지털TV 방송전환 및 로컬방송 확대는 물론이고 대구 음악FM 설립 개국(9월 예정)을 앞두고 채널 강화 및 확대를 통한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미디어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디어 위원회는 앞으로 하나님나라 확장과 실현을 위해서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미래 준비

와 대구경북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방송운영에 필요한 기도와 자문, 후원 등을 이끄는 활동에 동역할 계획이다.

대구CBS 미디어 운영위원은 김진태 장로(동산교회), 이시홍 장로(명일교회), 이용규 장로(불꽃교회), 유재철 집사(범어교회), 장정익 집사(평강교회), 정진성 장로(제이교회), 허중구 장로(대구중앙침례교회)등 7명의 평신도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CBS

새로운 형식의 선교대회 '3인 3색 토크콘서트'

오는 6월 2일 열릴 제주CBS 창립 16주년 기념 '3인 3색 토크콘서트'는 제목에서부터 기독교적 색채를 배제하고 교회 밖 공간에서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기독교의 가치를 담아내고, 제주교회의 가장 시급한 선교대상인 다음세대 선

교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선교대회이다.

'3인 3색 토크 콘서트'는 각 분야 정상의 독실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강사를 초대해 제주의 다음세대에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가치를 전달하고 문화적 접점을 찾아 소통한다.

이날 제주시에서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리며 1500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전할 예정이다.



포항CBS

CCM콘서트 '섬김과 사랑' 성황리 마쳐



포항CBS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30분 포스코 효자아트홀에서 2017 CCM콘서트 '섬김과 사랑'을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권대희 본부장과 포항CBS 방송선교협의회 구본철 회장을 비롯해 방송선교사와 성도,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CM가수 강찬, 사랑이야기(김재중, 김현중), 소울싱어즈, 메리제인(신현진, 송문정, 조수아, 김형미) 등이 출연했다.

광주CBS

소년소녀합창단 초청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가 지난 3월 12일 주일 저녁예배에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해, 은혜로운 찬양과 율동으로 CBS후원의 밤을 열었다. 채규현牧사는 “5년 전 광주중앙교회에 큰 어려움에 있을 때, CBS가 큰 버팀목이 됐다”며 모든 성도가 CBS 방송선교사에 동참하자고 권유하는 등 광주중앙교회와 CBS의 끈끈한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부산CBS

2017년 부활절 연합 축제

부산CBS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는 4월 16일 주일 오후 3시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2017년 예수부활 연합축제' 행사를 중계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CBS 등 기독교연기관이 후원하며 부산 기독교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연합 행사이다. 이 행사를 위하여 부산 CBS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중계할 예정이다.



강원CBS

강원CBS사옥 건축을 위한 선교대회

강원CBS사옥 건축을 위한 장로교연합 방송 선교대회가 지난 3월 5일 춘천 온누리교회(담임 목사 김창환)에서 춘천지역 성도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하나님의 손을 빌리자'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김선규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하면 될 것"이라며 "강원 CBS사옥 건축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길 믿는다"는 말씀을 전했다. 성도들은 합심기도 시간을 통해 방송을 통한 춘천 성시화와 강원도 복음화, 국가 안녕과 민족통일에 강원CBS가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사옥건축을 위한 후원 약정에도 동참했다.

나이영 강원CBS본부장은 "강원CBS 사옥건축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선교사명을 쌓는 일로 강원지

역의 선교 센터이자 통일 한국의 전국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또한 강원CBS 신사옥은 인접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애니메이션박물관, 의암호 자전거도로 등을 연계해 춘천 서부권을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선교대회는 김원중 목사(장로교연합회 회장, 춘천우리교회) 사회로 진행됐으며 복음성가 가수 조윤숙의 특별찬양도 마련됐다.

강원CBS 사옥에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첨단 방송시설과 기독교선교센터, 강원도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연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한 강원CBS 사옥 건축은 목표한 착공 모금액을 달성하면 공사를 시작해 가능한 올해 내 준공할 예정이다.



청주CBS

'조이포유 CCM콘서트' 성황리 종료



청주CBS가 마련한 '조이포유 CCM콘서트'가 지난 3월 28일 청주에 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이승훈 청주시장과 교계지도자, 시민 등 1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에는 CBS JOY4U DJ인 송정미와 한웅재, 최인혁과 안성진 등 국내 정상급 CCM 가수들이 출연해 은혜와 감동의 찬양을 선사했다.

관객 190여 명은 CBS 방송선교 후원을 위한 방송선교사 신청서(CMS)를 신청했다.

청주CBS는 이번 콘서트에 다문화가정 여성과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 100여 명을 특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공연 관람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종교개혁 500주년기획단 '나부터' 캠페인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계기로 CBS와 국민일보가 앞장서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이 함께 사용할 '나부터' 슬로건을 제정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변화와 갱신을 이뤄내고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피폐해진 한국사회에 새로운 정신개혁의 물결을 만들어 가는데 '나부터' 슬로건이 선두에 서있다.

현재 CBS 방송과 국민일보 지면을 통해서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 개신교 23개 주요교단본부

에 '나부터' 현수막이 걸렸으며, 차량스티커 35만 부와 포스터가 배포중이다. 기독교시민운동 단체들이 '나부터 95'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많은 직능단체와 목회자 성도들이 '나부터 릴레이 500'에 참여해 자신의 내면의 결단을 '나부터'라는 이름으로 SNS를 통해 릴레이 해나갈 것이다.

'나부터' 캠페인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한국기독교의 최초언론인 CBS가 마땅히 해야 할 일라고 생각한다.

